

충주지역 민속문화의 특징

임동철 (충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머리말

최근들어 문화, 특히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은 다른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다. 각 지역별 특징에 따라 여러 문화권을 설정하고 있고, 충북지역도 예외는 아니어서 충북문화, 남한강 문화, 금강 문화, 중원 문화 등 다양한 문화, 문화권역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충북지역은 한반도의 중앙부에 위치하며, 역사적으로 삼국의 쟁투지역이었던 이유로 각 지역의 문화가 혼효하여 나타나는 곳이다. 고대문화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 문화가, 고려시대에는 호족들의 세거지로, 조선시대에는 노론의 중심지로 역할을 하면서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여 왔다.

이러한 충북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한 충주는 중원문화의 핵심지로서 충북문화의 지역성과 남한강 유역 문화의 고유성이 가장 총괄적으로 드러나는 곳이다. 따라서 '중원문화권'이라는 관념론으로부터 출발하여 이 지역 문화현상에 대한 논의가 매우 활발했다. 그러나 문화의 한 축인 민속문화 자체에 대한 조사 내지 연구는 아직 많은 노력을 요하고 있다. 그나마 일부에서 민속지 형태의 조사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충북지역 민속문화의 특징에 대해서는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 자료들조차도 산발적으로 출간되어 종합적인 자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충주지역의 민속문화를 고찰하여 그 특징을 정리하고자 한다. 지역의 민속문화를 정리함으로써 문화현상을 통한 해당 지역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작업이 될 것이며 현재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각 문화, 문화권에 대한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충주지역의 특징

1. 충주지역의 지리적 특징

충주지역은 태백시의 금대봉 검용소에서 발원한 남한강과 속리산에서 발원한 달천이 탄금대 합수머리에서 합쳐 흐르고 있으며, 차령산맥과 소백산맥 사이에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지

형은 이중환의 『택리지』에서 볼 수 있듯, 예로부터 배와 수레가 모여드는 수로와 육로의 요충지로, 유사시에는 서로 점령하려하는 전장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충주시 엄정면에 위치한 목계(木溪)는 ‘상계’에서 ‘오목계’, 그리고 ‘목계’로 그 이름이 바뀌어 왔다. 목계나루의 시장은 현재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으나 ‘오목계’라는 명칭을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 목계는 조선시대 5대 하항(河港) 중의 하나였다. 목계는 특히 영월과 제천으로 통하는 교통의 요지이며, 중원문화권에서는 가장 큰 동네로 알려졌다.¹⁾ 남한강은 상류지역에서 징수한 전세(田稅)와 대동미를 운반하는 수로로서의 기능 외에도 17세기 이후에는 전에 없이 발달한 상업 타으로 수운(水運)을 이용한 경강상(京江商)들의 상행위가 빈번하였다. 이를 통하여 세곡 뿐만 아니라 목재, 소금, 해산물, 지역 농산물 등의 유통이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한강 각지의 문화가 충주지역으로 유입될 수 있었다. 경강상들은 상업활동 이외에 문화의 전파자 및 연계자, 창조자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이다.²⁾

이렇듯 강을 통한 소통과 산을 통한 단절의 양립은 민속문화에도 영향을 큰 영향을 끼쳤다. 강을 통해 다양한 문화가 서로 어우러질 수 있었고, 양 산맥 사이의 침식분지에 자리잡은 지형을 통해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2. 충주지역의 역사적 특징

남한강과 달천 등의 풍부한 수자원을 가지고 있는 충주지역의 역사는 한반도의 역사와 그 시작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충주 조동리 유적³⁾과 동량면 지동리 유적⁴⁾, 신니면의 토성⁵⁾ 등은 충주지역이 선사시대부터 한반도 문화의 중심지 역할 및 선진 문화의 교두보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 준다. 이렇게 오랜 역사는 남한강이라는 물길을 통해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수렵·채취 생활에서 정착하여 농경생활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물이라는 자원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을 것이며, 이러한 물길을 따라 민족의 이동도 이루어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유구한 충주지역의 역사는 이후 삼국시대로 접어들면서 고구려, 백제, 신라라는 각 나라의 문화를 경험함으로써 충주지역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게 된다. 삼국초기에는 한강이 남을 중심으로 한 백제가 이 일대를 점유하였으나, 고구려의 남하 이후에는 국원성(國原城)이

1) 이창식, 「忠北文化의 正體性과 中原文化圈의 忠州民俗」, 『中原文化論叢 第5輯』,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2001.

2) 김의숙, 「江原文化로 본 中原文化의 位相」, 『中原文化論叢 第5輯』,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2001.

또한 한강수로의 이용 빈도와 물자 유통량이 다른 강보다 많은 이유를 3가지로 들었다. 첫째, 하류에 서울, 중상류에 광주, 여주, 원주, 충주 등이 위치하여 일정 정도의 구매력을 갖추었다. 둘째, 모든 간선도로가 서울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로와 도로의 연계가 양호하였다. 셋째, 한강 하류와 서해안 지역의 수산물과 한강 상류의 발작물이나 임산물이 자연스럽게 교역될 수 있도록 생산 특화가 잘 이루어져 있었다.

3) 『한강유역사연구』, 전국향토사연구협의회, 2000.

4) 『충주댐 수몰지구 문화유적 발굴조사 종합보고서』, 충북대 박물관, 1984.

5) 『문화재지』, 충청북도, 1982.

설치되어 영남북지방 진출의 교두보적 역할을 수행하며, 백제의 영역을 호남일원으로 축소시켰다. 충주지역은 앞서 살폈듯이 많은 선사 유적들을 가지고 있다. 이는 선진문화를 가진 북방계 주민의 이동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선사 시대 이후로도 충주지역에는 지명이나 산성의 축조, 민속신앙에 있어서 북방계의 영향이 나타난다⁶⁾. 70여년에 이르는 고구려의 충주지역 지배⁷⁾는 그것을 다시 확인해 준다. 그리고 6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신라 진흥왕이 이 일대를 점유하게 되면서 삼국항쟁의 주도권이 신라로 넘어가게 되었고 이는 이후 삼국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⁸⁾ 삼국이 충주지역에 큰 비중을 두었던 이유는 지리적인 요인 뿐만 아니라, 지금은 폐광되었지만 충주가 대표적인 철의 생산지였다는 사실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충주의 명칭 변화를 통해서도 각 국의 영향 관계와 충주지역의 중요도를 확인할 수 있다. 충주는 ‘낭자곡성(娘子谷城)’이라는 이름으로 다루왕(多婁王) 36년(AD 63년)에 백제의 관소에 들어갔다고 기록되어 있다⁹⁾. 그리고 장수왕(長壽王) 63년(AD 475년)에는 고구려의 국원성(國原城)이 설치되었다. 이후 신라 진흥왕(眞興王) 18년(AD 557년)에는 국원소경(國原小京)이라 하였고, 경덕왕(景德王) 16년(AD 757년)에 중원소경(中原小京)이라 하게 된다. 신라시대 충주(中原京)의 위상은 충주지역의 독자적인 제도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진흥왕 3년에 김양(金陽)이 중원대윤(中原大尹)이 되었는데, 대윤(大尹)이란 관직은 제도상에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중원부(中原府)와 병부경(兵部卿) 이하 6부조직은 중앙정부와는 다른 충주지역의 독자적인 제도이다.¹⁰⁾ 이후 고려시대에는 태조 23년(940년)에 충주라 개칭하였고, 성종 2년(983년) 충주목(忠州牧)이라고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충청도 관찰사를 두게 된다. 고구려, 신라, 백제의 치열한 삼국시대 뿐만 아니라 고려,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충주지역은 정치·경제의 핵심지역으로 자리하게 된다.

충주지역의 설화

1. 중앙지향적 의식

충주시 가금면 탑평리에는 국호 제6호로 지정된 ‘중원 탑평리 칠층석탑(中原塔坪里七層石

6) 이창식, 「충북지역의 민속 특성과 문화권 모색」, 『충북학 2집』.

7) 고구려는 충주지역을 장악한 이후 국원성(國原城)이라 이름하여, 국원성을 남방진출의 전진기지로 삼는 등 충주의 장악의 의미를 크게 생각하였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중원고구려비(국보 제205호)를 세워 이를 기념하였던 것은 충주지역의 위상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8) 崔夢龍, 「中原文化圈과 中原文化」, 『中原文化 4』, 충주문화원, 1993.

9) 申滢植, 「韓國 古代史에 있어서 忠州」, 『中原文化 4』, 충주문화원, 1993.

그러나 ‘娘子谷城’의 위치에 대해서는 ‘淸州’로 보는 견해와 ‘忠州’로 보는 견해가 양립하고 있다.

10) 申滢植, 앞의 책.

塔)’이 있다. 신라시대에 세워진 이 탑은 그 유래에 대한 설화¹¹⁾로 인해 ‘중앙탑’이라는 별칭으로 더욱 유명하다. 그리고 고려의 태조 왕건은 중심(中心)고을이라는 의미로 충주(忠州)라 이름하였고 한다. 이상의 이야기들은 충주지역이 국토의 중앙이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지역민의 중심지향적인 사고를 보여주는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충주지역민의 자부심은 국토의 중앙이라는 측면 외에도 문화적 중심이라는 자긍심에도 영향을 받았다. 이는 과거의 문화적 선진성에 기인한 것이다. 진흥왕은 충주에 귀족(貴族)과 호민(豪民)을 이주시켜 문화도시로 육성시켰다. 그 첫 번 경우가 우륵(于勒)의 가야음악(伽倻音樂)을 이곳에서 보존케 한 것이며, 다음의 경우가 김생(金生)¹²⁾과 강수(强首)¹³⁾의 학문적 기반을 제공한 것이다. 이러한 충주의 예술, 문화도시화는 경주의 정치 도시에 대한 보완적 기능을 다함으로서 신라문화의 균형적 발전을 꾀하려는 정책이라 하겠다.¹⁴⁾

이렇듯 충주지역민의 의식속에는 중앙에 대한 자부심이 크게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경우, 충주지역의 문화가 다른 문화에 대하여 배타적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신라의 서울(경주)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삼국시대에도 각 국의 변방의 위치하여 치열한 전장이었다는 점 등으로 인해 끊임없는 중앙을 향한 갈망의 표출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결론에도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2. 보수적 성격

충주지역의 축성설화는 장미산성(보련산성)¹⁵⁾과 남산성¹⁶⁾ 설화가 전해지고 있다. 이 두 설화는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힘이 센 누이가 자결하고 동생이 이긴다는 남매 힘겨루기의 내용이다. 남한강 상류지역의 축성설화를 살펴보면 온달의 누이는 선돌이 되었고, 청원군 구녀성(九女城, 謳羅山城)의 아홉 누이들은 산 정상에 있는 무덤들 중에서 그 흔적을 남기고 있다. 하지만 충주지역의 축성설화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비극적 결말의 주인공(보련, 남매장수)들은 그 흔적을 남기지 못한 채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남성 중심적 사고가 일반화 되었음을 보여주는 설화이다.

그리고 ‘개좃바위’, ‘마귀바위¹⁷⁾라는 암석 설화에서도 위와 같은 남성 중심적 사고를 발견

11) 金榮振, 『韓國口碑文學大系 3-1』,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0, 472~473쪽.

12) 김생(金生 ; 711년(경덕왕 10년)~791년(원성왕 7년)). 자 지서(知瑞). 별명 구(玖). 어릴 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하여 다른 예도에는 관심이 없었고, 일생을 서예에 바쳤다. ‘해동(海東)의 서성(書聖)’이라 불렸고, 송(宋)나라에서도 왕희지(王羲之)를 능가하는 명필로 이름이 났다. 그의 필적은 유일한 서첩 『전유암산가서(田遊巖山家序)』 외에 『여산폭포시(廬山瀑布詩)』, 『낭공대사비(朗空大師碑)』에 전한다.

13) 강수(强首 ; ?~ 효소왕 1년(692년)). 통일신라의 유학자·문장가. 초명(初名) 자두(字頭). 중원경(中原京) 사량(沙梁) 출생. 任那加良인이었으나 신라지역으로 이주되었다. 학문을 시작하면서 불교보다는 유학에 관심을 기울였고, 벼슬길에 나아가 여러 관직을 역임하였다. 어머니가 꿈에 머리에 뿔이 난 사람을 보고 임신하였는데, 출생시 뒷머리의 뼈가 높이 솟아 있었다고 한다.

14) 申滢植, 앞의 책.

15) 韓宗求, 「忠州, 中原地方의 說話研究」, 『충주산업대 논문집 14』, 1984.

16) 韓宗求, 「忠州地方 傳説 一考察」, 『충주산업대 논문집 21』, 1987.

할 수 있다. 남성 중심적 사고는 남아선호(男兒選好) 사상으로 이어져, 남근을 상징하는 암석에 대한 신앙을 낳게 한다. 남근숭배(男根崇拜)와 관련된 암석 설화는 전국에 두루 분포하는 내용이며, 충주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달래강의 지명전설¹⁸⁾은 인류의 한계에 다다른 주인공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 내용의 전설이다. 인류의 한계점에서 주인공의 선택을 여러 가지로 열어두지 않고 단호하게 죽음이라는 결론을 맺음으로써 윤리적 교훈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는 설화이다.

그리고 충주시 동량면의 치마벼루와 며느리소¹⁹⁾에 대한 전설은 양반의 체통, 부녀자의 정절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들이 들어난다. 배가 전복돼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고, 며느리는 치마가 뒤집혀 물에 빠져들고 있는 상황에서도, 며느리의 엉킨 치마를 벗겨 구제해 주려는 사공의 행위와 극한 상황에서 부녀자의 도리를 지키지 못하는 며느리의 행동을 용납하지 못하는 보수적 의식이 담겨 있는 전설이다.

충주지역의 몇몇 설화에서 나타나듯이 충주지역은 전통이라는 기존의 틀을 고수하려는 성향이 짙으며, 남성지향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3. 인물 관련 설화

충주지역의 인물 전설은 우륵, 김생, 신립, 임경업에 대한 것들이 대부분이며, 단편적으로 몇몇 인물들에 대한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이들 전설의 대부분은 지명의 유래를 설명하는 설화로 인물의 삶에 대한 것이 아닌 빈약한 화소의 단편적인 행적에 대한 것들이다.

그리고 효열(孝烈) 중심의 설화가 또 하나의 특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효와 열에 대한 설화는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는 유형의 설화, 다시말해 부모의 봉양을 위해 겨울에 잉어나 딸기 등을 얻는 설화 유형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효와 열과 관련된 설화가 많은 반면 충(忠)을 주제로 하는 경우는 ‘신립의 옥관자’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충주지역의 설화중 단편적으로 나타나지만 자린고비(자린고비, 어정어들)와 도척에 관한 설화가 있다. 자린고비와 도척은 구두쇠로 살아왔지만 어진 인심을 베푸는 모습을 통해 악의적인 성격의 인물이 아닌 근검·절약하는 인물로 그려져 있다. 목계나루의 변성 등을 통해 충주지역에 상업적인 문화가 일찍이 자리잡았음을 고려한다면 이들의 설화는 부의 축적에 대한 경고 및 베푸는 삶에 대한 교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충주지역의 민요

충주지역의 대표적인 민요는 ‘절우자’와 ‘알라성’이다. 전자는 ‘모찌는 소리’로서 여럿이 후

17) 韓宗求, 앞의 책.

18) 金榮振, 『韓國口碑文學大系 3-1』,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0, 96~97쪽.

19) 韓宗求, 「忠州, 中原地方의 說話研究」, 『충주산업대 논문집 14』, 1984.

럼구를 주고받으며 부르는데, 리듬이 유연하며 약간 잦아진 장단으로 불리는 것이 특징이다. 후자인 ‘알라성’은 모심는 노래로서 메기는 소리와 받는 소리로 반복되는데, 얼핏 들으면 강원도 아리랑과 비슷한 리듬 같으면서도 중원지역 특유의 멋이 느껴지는 노래이다.²⁰⁾

모심는 소리²¹⁾

아라리야 아라리요 아리랑 어혈사 아랑성아
아라리야 아라리요 아리랑 어혈사 아랑성아
이논배미다 모를심어 장잎이 훨훨나서 영화로다
아라리야 아라리요 아리랑 어혈사 아랑성아
높은들엔 밭을치고 깊은들에는 논을쳐서
아라리야 아라리요 아리랑 어혈사 아랑성아
오곡잡곡에 농사를지니 해마다년년이 풍년만들어라
아라리야 아라리요 아리랑 어혈사 아랑성아
여기꽃고 저기꽃고 사오배출짜리루 꽃어만주소
아라리야 아라리요 아리랑 어혈사 아랑성아
일녘서산에 떨어지면 월출은동녘달솨아온다
아라리야 아라리요 아리랑 어혈사 아랑성아
이농사를 지어내서 호국충성 다한후에
아라리야 아라리요 아리랑 어혈사 아랑성아
부모공양을 한연후에 아라리야 아라리요
아라리야 아라리요 아리랑 어혈사 아랑성아

위 노래에서 후렴구로 불려지고 있는 “아라리야 아라리요 아리랑 어혈사 아랑성아”는 강원도 아리랑의 후렴구와 매우 유사한 가락으로 되어 있다. 이는 남한강을 통해 강의 상류 문화와 중류 문화가 서로 소통했음을 보여준다. 목계는 남한강 중류의 중심 나무로서 통해 상·하류의 배들이 오가던 곳이었다. 이 나무를 통해 남한강 수계에 해당하는 각 지역의 문화가 소통되었으며, 이러한 영향이 충주지역의 민요에도 끼쳤음을 볼 수 있다.

위 외에도 충주지역의 민요는 논농사와 관련된 민요가 상당수 전해지고 있으며 ‘논매는 소리’, ‘밭매는 소리’, ‘나물뜯는 소리’, ‘목화따는 소리’, ‘물레질 소리’, ‘베짜는 소리’, ‘탄금대 방아소리’, ‘땅다지는 소리’, ‘말뚝박는 소리’, ‘다듬이질 소리’, ‘아이어르는 소리’, ‘아기 재우는 소리’, ‘시집살이 노래’, ‘숫자풀이’, ‘화투풀이’, ‘범벅타령’ 등의 많은 민요가 전승되고 있다. 그리

20) 임동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2』, 정신문화연구원, 669쪽.

21) 金榮振, 『韓國口碑文學大系 3-1』,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0, 581쪽.

고 ‘집배소리’가 있었으나, 그 기능이 전이되어 본래의 노동요적 기능이 아닌 놀이적 기능을 가진 ‘뱃소리’로 나타난다.

충주지역 공동체 신앙

충주지역의 제의는 서낭제 위주이다. 유교식 의례가 두드러지고 세시풍속은 단오권의 성향이 우선하며 중부 복합성이 보인다. 별신제가 용신제의 성격을 띠고 나타난다. 양진명소사의 오룡굿, 목계의 별신제, 엄정 창정승머리의 서낭제 등은 무속제의면서 농악을 앞세운 마을 축제의 성격을 지닌다.²²⁾

별신제, 별신굿은 뱃길이 닿는 곳이나 교통의 주요 길목에 위치한 큰 마을에서 나타난다. 별신굿은 서낭굿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마을 축제적 성격이 두드러진다. 충주지역에는 목계별신제가 있었으나 현재 전승되지 않고 있다. 수운의 쇠퇴로 40여년전 마을회의를 열어 유교식으로 간소화하였다고 한다. 서울에서 새우젓, 조기, 소금, 미역, 고등어, 설탕, 광목이 들어오고, 목계에서 쌀, 보리, 팥, 조, 담배, 고추, 배, 나무 등이 나가며, 청풍에서 곡물과 담배 등을 실은 배는 서울 서빙고로 가고, 나무는 영월과 청풍에서 목계로 들어오며, 뗏목에 실어서 광나루로 가서 팔았다. 목계에서 들어온 물자는 영월, 문경, 예천, 단양, 제천 등지로 나가는 식의 교역이 이루어졌다. 목계별신제는 장시의 특성상 교역민속과 관련된 내륙 유교식과 무속식의 결합형을 띠고 있다. 전통사회의 목계나루는 부정기적인 시장이 컸으나 지금은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목계 서낭당에는 ‘부흥당(富興堂)’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위치는 목계 인도교 옆 봉제산(봉산, 부영산, 副興山) 위에 있다. 원래의 위치는 산 밑 다리 앞 삼거리(서울 방향쪽) 길옆에 있었는데, 1968년 다리 가설공사로 인하여 현재의 위치로 옮겨졌다. 부흥당 오르는 길은 가파른 돌계단으로 되어 있고 이 곳에는 예전의 나루터 자리가 한 눈에 들어온다. 당 안에는 중앙에 서낭각시를 중심으로 왼쪽에 산신, 오른쪽에 용신이 자리²³⁾하고 있어 중부 복합성을 확인해 준다.

“목계 당고사가 끝나야만 날이 풀린다”는 말이 있다. 이는 이 지역 주민들이 당고사에 상당한 비중을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다. 부흥당 당고사에서는 무당들을 불러 동리를 돌며 안반(案盤)굿을 하고 제당에는 소를 잡아서 제물로 올렸다. 예전의 당굿은 정월 10일에 시행했는데, 정월 5일 경 당골무당이 광대와 악사를 데리고 와서 광대놀이를 하여 3일간 돈을 벌고, 9일에는 아침부터 각 가정을 찾아다니면서 축원을 해주고 돈과 곡식을 얻어 당고사의 비용을 마련하고 밤에는 제관(祭官) 집에서 안반굿을 했다. 이것은 말하자면 ‘전야제의 걸림굿’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이날은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 ‘당굿추위’라는 말도 생겼다

22) 이창식, 「忠北文化의 正體性과 中原文化圈의 忠州民俗」, 『中原文化論叢 第5輯』,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2001.

23) 이창식, 「南漢江 流域 別神祭의 分布와 意味」, 『南漢江 주변의 民俗文化』, 예성문화연구회, 2002.

고 한다.

예전에는 당고사가 며칠 동안 대규모로 거행되었는데, 수운이 쇠퇴하면서 경기가 침체되어 경비를 걷기가 어렵게 되자 40여년 전에 회의를 열어 유교식으로 간략하게 제사하자고 의견을 모은 후에 일반 서낭제처럼 규모가 작아졌다. 원형적인 별신제는 일제강점기에 사라졌고, 현재에는 1977년 이후 재연되어 우륵문화제의 축제항목으로 자리잡았다.

충주지역이 농업 기반 사회였던 만큼 물, 비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자원이었다. 특히 수리 시설이 발달하지 못했던 과거에는 농사에 필요한 물을 전적으로 비에 의존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강을 끼고 있는 지역도 예외가 아니었다. 기우제(祈雨祭)는 가뭄이 들었을 때 지내는 동제로서 우제(雨祭) 또는 천제(天祭)라고도 한다. 기우제는 신성지역을 더럽히는 부정화(不淨化)로 강우를 기우하는 대항주술형(對抗呪術形)이다. 이 부정화 방법은 대체로 수신인 용이 살고 있다고 전해지는 강 주변의 용천(龍泉), 용소(龍沼), 용담(龍潭) 등을 더럽혀 득죄걸우(得罪乞雨)하는 방법이다. 주몽신화에서 ‘흰사슴’을 거꾸로 매달아 신과 소통하는 방식과 일맥상통한다. 목계에서는 두무소 ‘용바위’에서 ‘무제(물제)’를 지냈다. 돼지를 잡아서 용바위에 피를 뿌려 놓는다. 또는 키를 가지고 강가에 가서 까불면 비가 내린다고 한다. 기우제의 방식은 대항주술과 유감주술을 동시에 행위화하였다.

맺음말

충주지역의 민속문화를 설화와 민요, 공동체 신앙으로 크게 나누어 살펴보았다. 충주지역의 민속문화는 보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에 민속문화를 전반을 통해 충주의 지역적 특성을 찾는다고 보다는 몇몇 민속적 전승을 통해 충주지역 민속문화의 특징을 찾아내어 보았다.

충주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설화는 지명설화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암석설화가 상당수 발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인물설화에 있어 孝烈관련 설화는 발견되지만 忠관련 설화는 신립의 설화를 제외하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리고 충주지역의 몇몇 설화에서는 남성 중심적 사고가 두드러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 몇몇 설화들은 인륜과 체통 등을 철저히 지키고자 하는, 심지어는 목숨과도 맞바꿀만큼 가치를 부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충주지역 설화에서 보수성을 드러내주는 것이라고 정리하였다.

충주지역의 민요는 알라성(모심는 소리)를 중심으로 강원도 아리랑과 유사함을 설명하였다. 알라성의 후렴구가 강원도 아리랑의 후렴구와 거의 유사하다는 사실은, 충주지역이 남한 강을 통하여, 상류의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충주지역의 공동체 신앙은 목계별신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충주지역의 제의는 서낭제 위주이며 유교적 의례가 두드러지고 별신제가 용신제의 성격을 보인다. 또한 굿을 통해 지역 축제의 한마당이 펼쳐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충주지역의 민속문화는 다양한 문화적 특징들이 공존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는 고대로부

더 각 국의 여러 문화권을 두루 경험하였기 때문이며, 또한 남한강을 통해 상류와 하류의 문화가 서로 교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문화는 자극받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는 법이다. 충주 지역의 문화는 지속적인 자극에 노출되어 보편적인 문화 양상과 더불어 충주지역만의 독특한 문화를 발전시켜 온 것이다. 일제강점기 이후 목계의 쇠퇴의 도청의 이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지역문화가 그 자리를 잃고 있으나, 지속적인 연구와 관심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문헌

- 『南漢江 주변의 民俗文化』, 예성문화연구회, 2002.
- 『남한강 학술회의』, 내제문화연구회, 2001.
- 『中原文化 4』, 충주문화원, 1993.
- 『中原文化圈의 位相定立과 發展方向』, 충청북도·충북대학교 호서문화연구소, 1995.
- 『충북과 중원문화』, 충북개발연구원 부설 충북학연구소·충주MBC, 2000.
- 『충주·중원지』, 충주문화원, 1985.
- 『충주댐 수몰마을사』, 충주댐 수몰마을사 편찬위원회, 2001.
- 『충주댐 수몰지구 문화유적 발굴조사 종합보고서』, 충북대 박물관, 1984.
- 『충주의 발자취』, 충주시, 1997.
- 『충주의 지명』, 예성문화연구회, 1997.
- 『충주의 향토사』, 충주문화원, 1997.
- 『한강유역사연구』, 전국향토사연구협의회, 2000.
- 金榮振, 『韓國口碑文學大系 3-1』,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0, 472~473쪽.
- 김의숙, 「江原文化로 본 中原文化의 位相」, 『中原文化論叢 第5輯』,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2001.
- 申潁植, 「韓國 古代史에 있어서 忠州」, 『中原文化 4』, 충주문화원, 1993.
- 이창식, 「남한강 유역의 傳承文化 연구」, 『서울문화연구 2집』, 서울문화사학회, 1999.
- 이창식, 「忠北文化의 正體性과 中原文化圈의 忠州民俗」, 『中原文化論叢 第5輯』,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2001.
- 이창식, 「충북지역의 민속 특성과 문화권 모색」, 『충북학 2집』.
- 임동철·서영숙 편저, 『충북의 노동요』, 전국문화원연합회 충청북도지회, 1997.
- 崔夢龍, 「中原文化圈과 中原文化」, 『中原文化 4』, 충주문화원, 1993.
- 韓宗求, 「忠州, 中原地方의 說話研究」, 『충주산업대 논문집 14』, 1984.
- 韓宗求, 「忠州地方 傳説 一考察」, 『충주산업대 논문집 21』, 1987.

